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9월 2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음으로써 불국토를 장엄한다.
〈십주경〉

법회 안내

일지사 (02)878-3653
자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일교교리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어린이 한자교실 토 · 일 오후3시

묘각사 (02)763-3345
인명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영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동해 삼화사 (0394)34-8313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종고등학교 둘 · 넷째 일 오전11시

광주 항림사 (062)375-7600~2
입교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중고등학교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광주 광륵사 (062)222-7801
정기법회 매월 8일(음) 약사재일
자년법회 매주 금 오후3시
독송법회 매주 금 오후1시

광주 홍룡사 (062)651-5083
신중기도법회 매월 초하루~초사흘(음) 오전9시
칠성법회 매월 7일(음) 오전9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9시

부산 화엄정사 (051)206-5615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매월 15일(음) 오전11시
불교대학강의 목 · 금 오후8시

부산 영화사 (051)416-3529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매월 7일(음) 오전10시

부산 개운사 (051)521-4848
정기법회 매월 1일(양) 오전10시
매월 1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국립공원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

교계 강력 반대

현재 합동징수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가 민원해소를 이유로 분리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합동징수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접한 조계종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 자체가 교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여년전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구획되었기에 그동안 사찰의 엄청난 재산이 국가행정편의를 위해 제공돼 왔다"며 "분리징수를 강행한다면 입장객들에게 '이중징수'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계속적 민원 발생과 함께 사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고 우려,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일 내무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해서 분리징수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5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과 13일 민자당 김윤환 대표 14일 민주당 박일 대표와의 환담에서도 분리징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현행 합동징수제를 법제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윤환 민자당 대표는 실무자에게 검토시켜 불교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조계종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에서도 스님들은 "만일 정부가 분리징수 추진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사찰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립공원을 교계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충북 보은군이 행정쇄신사항으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람료를 분리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요청했으나 법무사는 현 공원 입장료 징수장소를 비롯 속리산 일대가 모두 법주사 소유임을 들어 강력 반발 보은군이 없었던 일로 하자고 취소했다"고 밝히며 지자체 실시로 인해 이러한 일이 곳곳에서 발생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수려하고 보존이 잘되어 있는 경관지는 대부분 사찰의 재산으로 되어 있음을 상기, 당해 건물뿐 아니라 소재하고 있는 전체 경관지가 모두 사찰임을 인식시킬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에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문화재관람료 금액 결정의 자율화, 예치금제도의 폐지, 경미한 현상변경의 자율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관람료 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치금의 활용, 관람료사찰 관리법안 제정 등을 '국립공원 및 관람료 사찰 현안개선 대책위'에 위임했다.

〈이경숙 기자〉

◇ 지난 14 · 15일 양일간 열린 '95 종교 세미나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등 1백여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종교의 역할을 통한 민족화합을 다짐했다. 이자리에는 이홍구 국무총리, 나웅배 통일부총리, 주돈식 문체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남북 종교교류로 민족 공동체 형성"

종교지도자 세미나서 상호신뢰 · 화합 강조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문체부가 공동주최한 '95 종교지도자 세미나가 지난 14일, 15일 서울 '한국의 집'과 경기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등 각 종교지도자 1백여명과 이홍구 국무총리, 나웅배 통일부총리, 주돈식 문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의 집에서 열린 제1부 '정부와의 대화'에서는 통일원 장관의 통일정책 설명과 문체부장관의 종교정책 설명, 국무총리와의 대화가 진행돼 종교계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나웅배부총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종교교류는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종교 · 자선 · 시민단체의 북한수해 지원 움직임과 관련, "적십자로 창구를 일원화해 지원금등을 북한적십자에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홍구총리는 "종교간의 상호신뢰와 화합은 민족대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독일통일에서 종교가 물리적 통일을 정신적 통합으로 바꾸는데 기여했듯이 우리 종교계도 민족공동체에 희망을 불어넣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요지 6면〉

직지사 환경운동 앞장 보호회 창립 실천나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스님)가 환경보호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직지사는 지난 15일 '제8교구 환경보호회'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8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지역 기관장, 신도등이 다수 참가했다.

주지 녹원스님을 위원장으로 부주지 법성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호회는 회장에 유영석씨, 부회장에 김태헌, 노진호씨를 각각 선임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회는 조직운영국과 환경보존대책국이 주업무 부서로 활동하고 운영위원단과 지도법사단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환경보호회는 앞으로 각 지역단위 조직의 결성과 각 말사 스님 및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8교구 지역내의 환경 실태조사와 방생운동, 짐승먹이주기, 산중쓰레기 수거, 나무뿌리 덮어주기등의 실천사업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경주, 고속철 통과시 세계문화유산 차질"

유네스코 사무총장 밝혀

경부고속철도가 경주도심을 통과할 경우 경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한 페데리코 마요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주돈식 문체부장관을 예방,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이 문제에 관해 유네스코 차원에서 협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경주시 전체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세계문화유산 지정 대상으로 파악, 문화유산 지정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측은 지난 8일 경북대박물관에 의뢰한 문화재훼손 여부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당초 3.5㎞로 돼있던 지하화 구간을 12㎞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지직 代물림 시정돼야"

월하종정, 종단풍토 개선 강조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주지 임면과 관련 "임기가 끝나 주지가 바뀌어도 상좌, 손상좌로 이어져 결국 독살이 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에산의 집행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월하스님은 지난 6일 통도사 정변전에서 조계종 상반기 종무행정 보고차 예방한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종단풍토 개선을 강조했다.

월하스님은 또한 선학원 문제와 관련 "선학원소속 스님들이 조계종단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무조건 흡수하기보다는 원만한 협상으로 처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분리방안도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종정스님이 종단내의 민감한 문제와 행정체제 개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조계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목어

천년 세월의 옷

'대고려 국보전'이 끝나던 날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오후 2시30분쯤 전시장에 들어가려는 매표소앞의 줄은 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구불구불 이어졌다.

가족끼리 손잡고 나와 1천년전 작품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장면은 '한국인의 긍지'를 서로 주고 받은 또 하나의 흐뭇한 모습이었다.

아, 불자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전시품의 대부분이 불교작품이므로 여기저기서 수월관음도에 대해 설명하고 부처님의 나발을 일러주는 부모들의 목소리에는 신이 올라 있었다.

그곳은 불법이 숨쉬는 포교현장이었다. 법사는 1천년전 불심으로 성보를 탄생시킨 장인들. 그들은 천년후인 오늘 무언의 설법을 하고 있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일본 소장품 앞에서 울화통을 터트렸다.

"좋은건 다 가져 갔군. 도로 찾아와야 돼."

또 어떤 이들은 이런말도 했다. "지금도 저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 말은 오늘의 불교미술인들에게 주는 과제일 수도 있다. 고려대의 작품 그 이상의 명품을 이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13일 공평아트홀에서 개막된 미술의 해 기념 불교미술특별기획전은 바로 이러한 숙제의 답을 풀어 볼 수 있는 전시장이었다. 불심과 예심에 천년세월의 옷이 입혀지긴 했지만 우리는 고려미술과 현대불교미술을 번갈아 보면서 천년후를 연상해 봐야 할 것이다. 오늘의 불교미술인들은 고려의 어느 화공 또는 금어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 후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시 천년을 준비하는 새 옷을 입자.

'身土不二'는 불교 용어 14면
조계종 중앙신도회 10월 창립 15면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유입, SF6 GAS, 건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통신기 및 변전설비, 철탑, 접구로울 ●산업용 기기및 설비 : 펌프 감속기, 송풍기, 크레인, 수문, 삭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화학장치, 주차설비 ●회전기기 :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서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교류전자 접촉기, 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건설 : 효성빌라, 주택건설, 각종 건축 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